

사커브레이크 | 亞챔스리그 참가 K리그 4팀 '지옥의 4월 생존전락'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K리그 4팀은 4월에만 무려 7경기씩을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3일 열린 성남일화-센트럴코스트(호주)전.

고스포드(호주) | 사진공동취재단

한달 7경기 '사투'...숨 조차 아껴라

전북, 태국서 직항편 귀국 체력 안배
울산, 서울전 14~25일 변경 '숨통'
포항, 호주원정 대비 로테이션 시스템
성남, 원정후엔 홈 들러 컨디션 조절

K리그 4팀이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다.

K리그를 대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의 4월은 죽음의 일정이다. 4월 한 달만 7경기가 예정돼 있다. 11일이 총선으로 공휴일로 지정돼 K리그 경기가 열리면서 일정이 더 뻥뻥해졌다.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K리그 3경기를 치르는데 앞뒤로 챔스리그도 소화해야 한다. 4팀 관계자들은 "총선만 아니었어도 그나마 좀 나은데"라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구단 프런트들은 선수들의 피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효과적인 일정 짜기에 여념이 없다.

●전북, 노스톱 항공편 활용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팀 4월 일정 (H=홈, A=원정, ※=ACL)											
팀	4.3	4.4	4.8	4.11	4.14	4.17	4.18	4.22	4.25	4.27	4.28
전북		※부리람(A)	경남(A)	강원(A)	부산(H)	※부리람(H)		포항(A)		광주(H)	
울산		※브리즈번(H)	광주(A)	제주(A)		※브리즈번(A)		인천(A)	서울(H)	대전(H)	
포항	※애들레이드(H)		성남(A)	수원(A)	제주(H)		※애들레이드(A)	전북(H)		대구	
성남		※센트럴(A)	포항(H)	전남(A)	대전(A)		※센트럴(H)	광주(H)		수원(A)	

전북은 태국에서 김해공항으로 곧바로 들어오는 항공편 덕분에 한 시름 났다. 전북은 4일 태국 부리람과 챔스리그 원정 후 8일 경남과 K리그 원정이었다. 부리람전을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6일이고 인천에서 창원까지 또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태국 방콕에서 직접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있어 이동시간을 크게 줄였다. 전북은 경남 전 후에도 계속 창원에 남아 있다가 11일 강원 원정을 하루 앞두고 강릉으로 이동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홍실 감독(대행)님이 창원 지역 출신이라 훈련할 운동장 등을 빌

리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다행이다"고 했다.

●울산, 일정 변경 효과

울산은 발 빠르게 일정을 바꿨다. 울산은 8일과 11일 광주, 제주와 연속 원정 후 14일 서울과 홈, 17일 호주 브리즈번과 원정이 예정돼 있었다. 울산은 일찌감치 서울에 양해를 구해 이 경기를 예비일인 25일 수요일로 바꿨다. 울산은 호주 원정을 마친 뒤 19일 오후 입국하는 데 울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천 송도 근처 호텔에 여장을 풀고 22일 인천 원정을 대비한다.

●포항, 로테이션으로

포항은 8일 성남 원정을 마친 뒤 계속 수도권에 머물며 11일 수원 원정을 대비했다. 문제는 18일 호주 애들레이드 원정. 14일 제주와 홈경기를 마치면 당일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가 없다. 15일 출발하면 16일 현지 도착해 하루 쉬고 경기에 나선다. 호주 원정 마치고 돌아오면 20일 저녁인데 또 하루 쉬고 강화 전복과 홈경기다. 포항 관계자는 "이런 일정을 예상하고 황선홍 감독님이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성남, 홈 들르고 다시 원정지로

성남은 장기원정 대신 번거로워도 중간에 홈을 들리는 쪽을 택했다. 성남은 8일 포항과 홈경기 후 11일과 14일 연속 전남, 대전 원정이다. 전남 전을 마친 뒤 바로 대전으로 갈까 고민했지만 성남에 올라왔다가 13일에 다시 내려가기로 했다. 성남 관계자는 "선수들이 너무 오래 원정 합숙을 하면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택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윤성호 vs 황선홍...이동국 vs 김은중 '절친 전쟁'

■K리그 7R 관전포인트



K리그 7라운드 8경기가 11일 일제히 벌어진다. 이번 라운드에는 친분이 두터운 감독과 선수간 맞대결이 연이어 벌어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절친 노트'로 진행될 K리그 7라운드 경기들을 짚어본다.

●울산 김호곤 감독 VS 제주 박경훈 감독

승점차 없는 1위 제주와 3위 울산의 격돌이다. 울산 김호곤 감독과 제주 박경훈 감독의 자존심 대결이 불만하다. 두 감독은 코칭스태프 오랫동안 한술밥을 먹으며 정을 나눴다. 김 감독이 부산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때 박 감독은 코치였다. 올림피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둘

은 한국이 아테네올림픽에서 8강에 진출하는데 힘을 합쳤다. 2010년 박 감독이 제주 사령탑에 부임한 뒤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2년간 5차례 만나 박 감독이 3승을 거둬 2승을 챙긴 김 감독에게 앞서있다.

●수원 윤성호 감독 VS 포항 황선홍 감독

선수시절부터 가까이 지내온 수원 윤성호 감독과 포항 황선홍 감독은 묘한 인연이 있다. 윤 감독이 2년 전 지도자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상대가 황 감독의 부산이었다. 황 감독은 윤 감독에게 호된 신고식을 예고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해 FA컵 결승에서 다시 만난 두 감독. 황 감독은 프로 지도자로 첫 우승을 노렸지만 윤 감독에게 막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수원만 만나면 재미를 못 봤던 황 감독은 지난해 포항 지휘봉을 잡은 뒤 윤 감독을



수원 윤성호 감독(왼쪽)과 포항 황선홍 감독

상대로 처음 승리를 거두며 징크스를 털어냈다. 올해는 누가 먼저 웃을까.

●강원 김은중 VS 전북 이동국

절친한 친구인 강원 김은중과 전북 이동국은 1998년부터 줄곧 대결구도를 이어왔다. 이동국이 121골을 터뜨려 107골을 넣은 김은중보다 앞서있다. 이동국은 이번 시즌 6골, 김은중은 4골로 득점랭킹에서 각각 1위와 5위에 랭크돼 있다. 한 명이 은퇴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대결해야 하는 운명. 재미난 사실 하나는 이동국이 프로데뷔 이후 골을 못 넣고 있는 유일한 팀이 강원이다. 김은중은 올해 강원에서 세 등지를 틀었다. 이동국이 친구가 보는 앞에서 K리그 전구단 상대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박용호 VS 서울 최태욱

1999년 부평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삼총사 중 2명이 박용호와 최태욱이었다. 둘은 서울(전 안양)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최태욱이 2004년 인천으로 이적한 뒤 헤어졌던 둘은 2010년 다시 만났다. 최태욱이 전북에서 서울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둘은 그해 좋은 활약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고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2년 만에 다시 갈라졌다. 박용호는 부산 유니폼을 입었다. 수비수 박용호와 공격수 최태욱은 오랜만에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어게인 1999" 용병 덕에 용꿈 꾸는 수원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졌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전관왕을 달성했던 1999년을 되새기는 수원 삼성의 요즘 분위기다. 4승1무1패로 2위에 올라있는 수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올 시즌 정상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되풀이되는 좋은 기억이 힘을 실어준다. 기류부터 다르다. 여러모로 13년 전 수원의 르네상스 시절과 유사하다. 특히 용병 라인업이 수원 윤성호 감독을 호트하게 한다. 사

샤(세르비아)-데니스(러시아)-비탈리(우크라이나)-올리(루마니아) 등 당시 용병들을 대신해 올해는 라돈치치(몬테네그로)-스테보(마케도니아)-에벨톤C(브라질)-보스나(호주)가 자리를 채웠다.

작년 시즌 정상 목전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지독한 불운 속에 "용병 때문이야"를 외쳤던 수원 벤치는 이제 "용병 덕분이야"를 외칠 정도로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스테보, 에벨톤C, 라돈치치, 보스나

공격 진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원에서 첫 시즌이지만 라돈치치는 벌써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인천 시절 5년간(04~08) 31골 9도움을 했고, 성남에서 3년간(09~2011) 23골 10도움을 올렸다. 매년 평균 6~7골 정도 넣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자신의 한 시즌 평균 기록에 근접하고 있는 셈.

스테보도 영양만점이다. 비록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가 이어진 올해 초반까지 기여도는 높지 않았지만 다재다능한 몸놀림을 선보이고 있다. 고작 3경기에 나섰을 뿐인데, 라이벌 서울을 상대로 썩기 골을 넣었다. 웬 포워드로서의 가치도 입증했다. 에벨톤C도 측면 및 중앙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확인시켰다. 수원의 정상 탈환 프로젝트는 용병 덕분에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K리그 7R 관전포인트

11일(수)

수원 vs 포항	수원은 최근 홈 3경기 상대팀 무실점으로 묶이며 3전승. 포항은 시즌 초반 부진 탈고 3연승. 5골로 나란히 득점 2위 라돈치치와 지쿠의 맞대결 관심
오후 1시 수원월드컵경기장 22층 20부 22매(홈 기준) 중계 SBS(생) SBS ESPN(녹 15:00)	
부산 vs 서울	2연승 부산과 상주 전 승리로 슈퍼매치 약풍 펼쳐낸 서울의 대결. 서울의 창이 부산의 질식 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승부의 관건
오후 3시 부산아시안드경기장 42층 43부 46매 중계 MBC SPORTS+(생), SPOTV 2(생, IPTV)	
대구 vs 경남	제주전 패배로 3연승 마감한 대구. 그러나 올 시즌 안방에서는 2승1무로 천하무적. 경남은 개막전 승리 이후 5경기 연속 무승
오후 3시 대구스타디움 2층1부11매 중계 KBS N(생)	
강원 vs 전북	4월 1승1무 기록 중인 상승세의 강원과 6라운드 경남을 꺾고 분위기 반전한 전북의 대결. 동갑내기 공격수 김은중(4골)과 이동국(6골)의 맞대결
오후 5시 강릉종합운동장 중계 SPOTV 2(생, IPTV) 2층 5매	
인천 vs 광주	최근 2경기 연속 무승(1무1패)의 두 팀 대결. 설기현 외에는 마땅한 공격 자원이 없는 인천과 짜임새 있는 비법밥 축구로 선전 중인 광주의 맞대결
오후 3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1층1부 중계 CMB 광주(생)	
상주 vs 대전	안방에서 2전 전패 상주. 최하위 대전을 제물로 홈경기 첫 승리 노려. 대전은 6전 전패, 1득점 12실점의 총체적 위기
오후 3시 상주시민운동장 1층1부	
전남 vs 성남	전남은 팀의 간판 공격수 이종호의 경고누적 출전정지가 걸림돌. 성남은 초반 부진을 탈고 하위권(15위)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
오후 3시 광양축구전용구장 15층 19부 27매	
제주 vs 울산	나란히 승점13을 기록하며 1위와 3위인 제주와 울산의 맞대결. 제주는 3연승하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체비. 울산은 광주 잡으며 분위기 반전했으나 체력이 변수
오후 3시 제주월드컵경기장 38층 43부 52매	

전남 대반격, 홈 4연전이 열쇠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남은 "제2의 창단이란 각오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막상 두경기 열려가 아직까지 '재 창단'이라 부를만한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6라운드까지 1승3무2패 11위가 성적표.

하지만 전남 정형성 감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결과가 모든 걸 보여주는 스포츠 생리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한다.

이겼어도 내용이 좋지 못하면 꾸지람을 했던 정 감독은 최근 선수들을 크게 나무랄 수 없었다. "플레이는 좋았다. 승수를 많이 쌓지는 못했지만 회복되는 과정이다. 문전 마무리만 좀 더 기다리면 반전이 가능하다."

전남은 4월 대반격을 기대한다. 핵심은 홈 4연전이다. 성남(11일)-광주(15일)-대전(22일)-인천(29일)을 모두 광양에서 만난다. 비록 7일 수원과의 홈 대결에선 1-1 무승부를 거뒀지만 희망을 봤다. 쟁쟁한 용병 라인업을 구축한 상대에 뒤지지 않고 대등한 플레이를 했다. 전남은 한 번 흐름을 타면 매서워진다. 작년에도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며 3~5위를 꾸준히 유지했다. 비록 아쉽게 6강 티켓은 놓쳤으나 전남의 매운맛은 제대로 보여졌다. 정 감독은 "지난 시즌은 치고 갈 부분은 꼭 치고 갔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런 맛이 없다.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

